

## 丁玲 晩年の 문학세계\*

김 미 정\*\*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V. 전략과 진실 사이,<br>와해되는 긴장 |
| II. 丁玲, 자기개조의 길                 | V. 나오는 글                  |
| III. <杜晚香>의 세계 — 전략인가,<br>진실인가? |                           |

### I. 들어가는 글

丁玲연구는 독특한 주제이다. 그 독특함은 작품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문학작품 외에 그녀의 남다른 경력,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연구자들의 종식되지 않는 입장 차이와 논란도 丁玲연구의 일부분이다.

丁玲과 丁玲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몇 가지 대립점으로 나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로 다른 문학적 지향과 가치를 보여주는 사회주의 주류이데올로기의 입장과 페미니즘적 입장의 차이이다.

우선 주류 사회주의혁명이데올로기의 가치기준으로 볼 때, 丁玲은 결코 일류의 문학가가 아니다. 丁玲의 문학은 지나치게 ‘개인화’되어 있고, 여성 신변의 자살한 심리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茅盾이 丁玲의 莎菲를 “시대 고민의 상처를 짊어진 반역적 절규자”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곧바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북대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중국문단에는 <莎菲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 보다 더욱 깊고 더욱 사회적 의의가 있는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sup>1)</sup>고 재정리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판단의 출발점을 보여준다. 이 연장선의 극점에 周揚의 <문예전선상의 대변론(文藝戰線上的一場大辯論)>이 있다. 이 글은 周揚과 丁玲의 사적인 은원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반우파 투쟁 이후 1950년대 문예계의 총결판<sup>2)</sup>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周揚은 “문학사업은 전체 인민사업의 일부인가, 아니면 개인 명리의 도구인가?”<sup>3)</sup>라고 물으며, 丁玲은 “집체주의적 정신으로 자신을 개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주의의 면모로 당과 혁명사업을 개조하려” 했던 “철두철미한 개인주의자”, “일관되게 당에 불충한 인물”<sup>4)</sup>이라 평한다. 延安文藝講話 이후 무수한 검토와 반성을 거쳐 자기개조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丁玲이었고, <태양은 상건하에 비친다(太陽照在桑干河上)>로 사회주의문화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까지 수상했지만, 막상 치열한 정치투쟁이 벌어지면 주류정치권력에 의해 丁玲은 여지없이 莎菲의 실제 분신으로, 심지어는 <태양은 상건하에 비친다>의 黑妮까지 莎菲의 변신으로 둔갑<sup>5)</sup>되곤 했다. 丁玲의 문학세계에 각인된 강렬한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인상은 만년까지 丁玲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丁玲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대표작으로 필사적으로 선전해야 했던 작품이 만년의 <杜晚香>이라는 사실은 丁玲의 초기 작품의 ‘개인주의’, ‘개성주의’가 그녀의 정치인생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丁玲의 이른 바 ‘역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시기도 다른 작가들이 모두 복권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인 1984년 8월이었다는 사실은 丁玲에게 주류이데올로기에 의해 인정되기 어려운 무언

1) 茅盾, <女作家丁玲>, 《丁玲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253쪽.

2) 洪子誠, 《1956:百花時代》, 250쪽.

3) 周揚, <文藝戰線上的一場大辯論>, 《丁玲研究資料》, 417쪽.

4) 周揚, <文藝戰線上的一場大辯論>, 《丁玲研究資料》, 414쪽.

5) 王燎熒, <‘太陽照在桑干河上’究竟是什麼樣的作品>, 《丁玲研究資料》, 423-433쪽.

가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 문학비평 입장의 연구자들은 莎菲로 대표되는 丁玲의 초기 작품과 여성의 억압된 현실을 다루는 일련의 작품에 주목하며, 작가로서 丁玲이 가장 빛나는 지점이 바로 저항적 성격의 페미니즘적 문학의 창조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丁玲의 펜 끝에서 여성은 근대도시의 소외된 환경에서 각성하고 저항하는 성별집단으로 탄생<sup>6)</sup>했고, 공통구에도 엄존하는 다중적 여성억압에 상처받은 고독한 개인의 형상으로 창조되기도 했다. 확실히 페미니즘적 연구는 丁玲 작품에 이채를 뿜는 여성들의 형상을 뚜렷하게 각인시키며 중국현대문학사에서의 의미를 풍부히 해주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입장의 논자들 역시 丁玲의 가치를 페미니즘작가의 차원에만 부여하는 경향<sup>7)</sup>이 있었다. 따라서 丁玲의 전향 이후 여성 입장의 점진적인 퇴각 및 주류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향은 곧 丁玲문학의 생명력과 가치의 상실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만년의 丁玲이 보여준 사회주의적 신여성의 형상 ‘杜晚香’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성, 妻性, 母性까지 사라진 ‘無’성의 인물을 창조했다<sup>8)</sup>는 혹독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丁玲의 문학세계, 특히 만년의 문학세계를 위와 유사하거나 위에서 파생한 모순·대립선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다. 丁玲문학의 핵심을 문학—혹은 개인, 또는 진실—과 정치의 갈등을 기본선으로 하는 기본 틀 속에서, 그 구체적 양상을 오사문학전통과 사회주의문학전통의 대립, 또는 丁玲의 좌익으로의 전향 이후 문학의 세계를 本我和 自我의 대립과 길항으로 파악하는 경우<sup>9)</sup>가 있고, 丁玲의 만년의 문학적 취향

6) 孟悅·戴錦華, 《浮出歷史地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133쪽.

7) 대표적으로 董炳月: <男權與丁玲早期小說創作>,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3.4기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丁玲연구의 주류는 페미니즘적 연구였다. 이 시기 丁玲研究 성과의 상당 수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수행된 것이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위의 입장을 공유한다.

8) 許傳宏, <析丁玲晩年の文學價值取向>, 《當代作家評論》4기, 2001.

9) 秦林芳, <丁玲與‘傷痕文學’>, 《文藝爭鳴》2기, 2009.

은 자아방기인가, 자아확인인가?<sup>10)</sup>는 질문에서부터 丁玲의 문학세계를 재구성하는 시도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논의들은 만년의 丁玲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완고한 ‘老左’의 모습으로 돌아온 丁玲은 진정으로 개조된 것일까, 아니면 상황적 필요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명예를 보전하고자 하는 일시적인 처세의 표현이었을까? 혹은 수십년 당내의 정치풍파 속에서 내면화된 ‘두려움’의 표현이었을까?

본고는 丁玲 만년의 대표작 <杜晚香> 및 丁玲의 일기와 지인과의 편지 등 丁玲의 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丁玲의 생의 마지막을 규정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만년 丁玲의 ‘左’적 형상,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본인의 주장대로 사회주의로의 성공적 개조였는지, 아니면 심중에 또 다른 분열적 예술적 자아를 품은 정치적 제스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丁玲의 독특한 만년 세계의 진실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중국현대작가에게 자기 ‘개조’의 문제는 늘 그 작가 자신의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 II. 丁玲, 자기개조의 길

丁玲은 延安文藝座談會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丁玲은 동지”<sup>11)</sup>라는 毛澤東의 특별한 배려로 위기를 넘긴 뒤, 王實味를 비판했다. 그리고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 뒤돌아보니 피안에 온 느낌입니다. 과거의 모든 번민, 모든 노력, 모든 잘못과 착오를 돌아보면 마치 唐 삼장법사가 天界의 강변에 서서 자신의 껍데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10) 許傳宏, <析丁玲晚年的文學價值取向>, 《當代作家評論》 4기, 2001.

11) 丁玲, <延安文藝座談會前前後後>, 《丁玲文集, 5卷》, 281쪽.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았기에 부끄럽습니다.<sup>12)</sup>

이에 대해 필자는 “과정이 생략된”, “순간의 깨달음에 의해 자신의 모든 현실적인 고민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의 다양성과 필연적인 상호연관을 사 고할 수 없는 사고의 단순한 본원적 세계로 후퇴해 버린 것”<sup>13)</sup>이라 평한 바 있다. 이는 “현실과 멀리 떨어진 피안의 세계에 자신을 투영하고, 피안 의 세계로 안내한다는 신성한 매개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sup>14)</sup> 일종의 자기부정의 종교적 태도이다. 延安정치와의 긴장관계를 보여줬던 <삼팔절유 감(三八節有感)> 이후 延安文藝講話에 의한 자아비판서라 할 수 있는 <입 장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關於立場問題我見)> 및 <문예계에 필요한 王實 味에 대한 태도 및 반성(文藝界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에 이르는 짧 은 기간 동안 丁玲의 태도는 급변했다. 그런데 그 태도의 급변은 단지 정 치적 형세의 다급함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는다. 돌아보니 마치 “삼장 법사가 天界의 강변에서 자신의 껍데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듯하다” 는 丁玲의 자기고백에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丁玲의 정신적 홀 가분함이 느껴진다. 그 홀가분함이야말로 丁玲이 처했던 진퇴양난의 어려 움을 환기시키는 것이겠지만, 어쨌거나 丁玲은 延安文藝講話의 ‘공농병문 예’의 규범을 종교적 자세로 수용함으로써 정신적 위안을 얻었고, 이러한 자기부정의 바탕 위에서 성실히 자기개조에 임하고 있었다.

延安文藝講話 이후, <입장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에는 자아개조를 위해 丁玲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난다. 그것은 “공산당원작 가, 마르크스주의작가는 오로지 무산계급의 입장, 당의 입장, 중앙의 입장이 있을 뿐”<sup>15)</sup>이라는 입장문제에 대한 확고한 태도표명이었다. 그렇지만

12) 丁玲, <文藝界對王實味應有的態度及反省>, 《丁玲集外文選》, 137쪽.

13) 김미정, <丁玲문학의 진폭2-좌익문예에서 공농병문예로>, 《중국어문학》 제 52집, 343쪽.

14) 같은 논문.

15) 丁玲, <關於立場問題我見>, 《丁玲文集, 6卷》, 17쪽.

丁玲도 “입장은 주요문제를 해결할 뿐, 예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음”<sup>16)</sup>을 알고 있었다. 입장에 대한 원칙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상황에서 예술창작은 어떻게 실현되는 하는 것일까? 丁玲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술창작의 과정을 설명한다.

크고 전체적이고 몽롱한 세계관의 전제가 생겼지만 어떻게 매순간 구체적인 문제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좌우편향 없이 완전히 정확할 수 있는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작품에 반영된 사상도 결코 우리의 인식 또는 의도에 기대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이론과 감정의 일치에 의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sup>17)</sup>

필자는 윗글이 이론가형의 인물이 아니었던 丁玲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적 설명방식이라 판단한다. 丁玲은 정확한 학습을 통한 ‘이론’에 작가의 ‘감정’을 일치시킨 이른 바 ‘의식’, 결국 세계관에 의해 작품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계관에 대한 丁玲의 추수는 이후에도 지속된다. 丁玲은 끊임없이 세계관과 올바른 세계관의 획득을 위한 학습을 강조했다. 단지 학습의 방식이 이론학습 뿐 아니라, 군중의 실제생활 속에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배우는 학습으로 실제화할 따름이다. 그런데 丁玲에게 이론이란, 지극히 간단한 마르크스주의의 모델에 의해 중국사회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고, 그 위에 무산계급대중의 혁명신화를 적용해나가는 것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따라서 丁玲에게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이론원전에 대한 꼼꼼한 이해였기 보다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당의 정책과 지도자의 의도에 대한 정치적이면서 감성적인 이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延安文藝講話 이후 번잡한 실제 공작 속에서 丁玲이 실제 학습을 통해 이론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했던 흔적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당의 요구에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일치시키며, 스스로 정치권력과 일체가 되는 모

16) 丁玲, <關於立場問題我見>, 《丁玲文集, 6卷》, 22쪽.

17) 같은 책, 19쪽.

습으로 자기 개조의 성실함을 드러내곤 했다.

어쨌거나 이후에 보이는 丁玲의 자아개조에 대한 丁玲의 결심은 확고했고, 노력은 진지했다. 그녀는 <환골탈퇴(脫退換骨)>, <심신의 일신(革面洗心)>이란 제목을 붙여 자신의 노트에 정풍운동기간 중 학습과 깨달음을 기록<sup>18)</sup>하며 마음을 다졌고, 王實味, 蕭軍 등 당의 방침에 불만을 품은 과거의 동료인사들에 대해 앞장서서 독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1944년 투쟁하는 신인물, <텐바오린(田保霖)>을 써서 毛澤東에 의해 공식적으로 자기개조에 성공했음을 인정받았<sup>19)</sup>, 1948년 마침내 <태양은 상건하에 비친다>를 발표하여 延安文藝講話의 문예노선에 의해 일신된 면모를 보여준 대표적 무산계급작가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

그렇지만 이른 바 ‘丁陳反黨集團’사건과 반우파투쟁으로 丁玲은 하루 아침에 당적이 박탈되면서 北大荒으로 정치적 하방을 당하는 수난을 맞았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또 조반파 홍위병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겪었으며, 1970년부터 5년간 독방 수감생활을 하는 등 인생 후반기 20여년을 당과 정치에 의해 버림받았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만년에 秦城감옥에서 수감생활의 가장 큰 공덕은 감옥 밖에 있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던 《마르크스·엔겔스전집》 39권을 읽을 수 있었던 것<sup>20)</sup>이라 말한다. 비로소 당의 실제 정책이 아닌 이론원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고령의 丁玲은 왜 이 시기에 마르크스 엔겔스저작을 읽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론을 통해 처음부터 상황을 검토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삶과 경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싶은 갈망이 아니었을까?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과 중국사회주의의 토양에 대한 반성이 문단을 뒤흔들 때에도,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극좌정치의

18) 陳明, <丁玲在延安>, 《新文學史料》 2기, 1993.

19) 丁玲, <毛主席給我們的一封信>, 《丁玲文集, 5卷》, 250쪽.

당시 毛澤東은 “丁玲은 이제 공농병 속으로 들어갔다. <텐바오린>은 훌륭하다. 작가가 균중 속으로 들어가면 좋은 글을 써낼 수 있다”라고 공개석상(고급 간부회의)에서 발언했다.

20) 周良沛, 《丁玲傳》, 695쪽.

폐해를 직접적으로 증언해줄 丁玲의 한 마디를 기다릴 때에도, 중국공산당에 대한 丁玲의 무한 신뢰와 충정은 일관됐다.

지금 내 감정을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내 개인으로 말하자면 물론 손실을 입었지요. 하지만 당과 인민과 국가가 당한 손실은 더욱 큼니다. 내가 불행한 시대를 살았다면 당과 인민도 똑같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 혁명가로서, 혁명작가로서, 혁명의 장도에서 어찌 자신만은 순조롭게 한 점 좌절도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sup>21)</sup>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란 사람, 과거에 비판을 당했던 까닭에 다시 비판을 당할까 마음 깊이 두려움이 남아 있는거라 합니다.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을 당했던 것은 나와 당이 걸어왔던 길고긴 곡절 많은 고난의 길에서 꽤 고생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했기에 그 고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sup>22)</sup>

자신의 고난은 당과 인민과 국가의 고난의 일부일 따름이라는 丁玲의 논리에 ‘나’의 개인적 수난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과연 延安文藝講話의 지침에 따라 ‘군중 속으로 들어가’ ‘집체주의 정신’으로 충실하게 자신을 개조한 丁玲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달리 보자면, 그것은 자기 개조의 고단한 과정과 험난했던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丁玲의 자기공정의 한 면이기도 하다. 丁玲은 자신의 상처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대신, 삶의 한 부분으로 감싸안는 것이다.

21) 丁玲, <我的生平與創作>, 《丁玲文集, 5卷》, 413쪽. 이 글은 1981년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행했던 연설문의 일부.

22) 같은 책, 404쪽. 이 글은 1980년 中國語言學院 좌담회의 담화록.

### Ⅲ. <杜晚香>의 세계 - 전략인가, 진실인가?

<杜晚香>은 문화대혁명 이전인 1965년에 쓰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하다가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1978년, 山西省 長治 嶂頭村에서 요양하며 北京으로의 귀환 허락을 기다리던 시기에 다시 쓰여졌다. 丁玲이 이 작품에 거는 기대는 특별했다. 이미 우파분자의 딱지는 벗어나 있었고, 곧 문단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에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丁玲은 이 작품을 “문단을 떠난지 20년만에”, “나를 잘 모르는 젊은 독자와 여전히 관심을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치는 정치적인 “상견례의 선물”<sup>23)</sup>로 여겼다. 이런 목적 때문에 발표과정에도 곡절이 많았다. 처음 발표를 원했던 《人民日報》에서는 마지막 “당이여! 영명하고 위대한 당이여! 당신은 이 세상의 광명이요, 희망이요, 따뜻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위해, 공산주의사업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sup>24)</sup>는 이하 부분의 삭제를 원했다. 신문의 특성상 지면의 제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丁玲으로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면 공개적인 정치적 태도표명, 이른바 亮相의 의미를 잃게 된다. 결국 원고는 《人民文學》과 《十月》을 거쳐, 다시 《人民文學》으로 돌아가 발표<sup>25)</sup>되었다. 丁玲이 자신이 원고를 간절히 원했던 《十月》편집진에 실례를 무릅쓰면서 굳이 《人民文學》에 작품을 발표한 데는 전국적 잡지였던 《人民文學》이 자신의 복귀와 亮相을 알리는데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산문과 단편소설의 간장르적 성격<sup>26)</sup>을 보이는 작품 <杜晚香>은 사회주

23) 丁玲, <‘牛棚小品’出刊的故事>, 《丁玲文集, 5卷》, 430쪽.

24) 丁玲, <杜晚香>, 《丁玲文集, 3卷》, 306쪽.

25) 이렇게 <杜晚香>의 원고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대체적인 상황은 丁玲, <‘牛棚小品’出刊的故事>, 《丁玲文集, 5卷》 431-432쪽에 걸쳐 소개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秦林芳, 《丁玲最后37年》, 中國文史出版社, 2006, 235-236쪽에 밝혀져 있다.

26) <杜晚香>에 대해 丁玲은 ‘散文’으로 규정한다. 이후 丁玲이 杜晚香을 자신의

의 신중국에서 성장한 여주인공, ‘杜晚香’이란 실존인물을 모델로 쓰여진 이야기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5세에 어머니를 잃은 杜晚香은 계모의 모진 구박 속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13세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다. 토지개혁운동 속에서 토지조사당원의 도움과 관심 속에서 비로소 ‘어머니’의 품을 느낀 杜晚香은 이후 당의 교육을 받으며 어엿한 공산당원으로 성장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남편이 돌아와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杜晚香은 단신으로 고향 西北을 떠나 北大荒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가사 일만 하는 보통의 가정주부에 회의를 느낀 그녀는 사회주의적 여주인공답게 가정에서부터 사회적 노동으로 나아간다. 그녀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집단농장의 온갖 노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邊區 개발 및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도덕과 품격을 구비한 인물”<sup>27)</sup>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杜晚香>의 일대기에서 많은 평자들의 눈길을 끈 대목은 杜晚香의 결혼 후 가정생활, 여성으로서 자아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것이다. 대단히 소략하게 처리된 杜晚香의 개인신상과 감정선의 양상은 이전 丁玲 작품의 주인공들과 확연히 달랐다.

그(杜晚香의 남편-역자 주)는 조선으로 출국하여 미국놈들과 싸우면서, 수년간 배웠고 많은 지식도 얻었다. 게다가 지금은 트랙터 기사가 되어 수십 마력이나 되는 저 커다란 차를 몰고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시 밤부터 아침까지 이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검은 빛 감도는 北大荒 대지를 가리킴-역자 주) 속을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른 기사들 및 대대의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렇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밥을 차려오길 기다렸고, 다 먹으면 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사상과 감정을 옮겨 놓은 ‘분신’으로 언급하는 것도, 산문의 자기고백적 본질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일리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杜晚香>의 구조와 인물창조라는 면에서, 산문 보다는 단편소설로 보는 연구자들도 제법 있다. 필자는 <杜晚香>이 산문적 요소와 소설적 요소를 모두 일정 부분 지닌 간장르적 성격을 보이는 작품으로 간주한다.

27) 丁玲, <‘牛棚小品’出刊的故事>, 《丁玲文集, 5卷》, 431쪽.

가 웃고 떠들며 포커를 치거나 바둑을 뒀다. 그는 이전에 그녀의 시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와 할 말이 없었다. 생각해 보면, 그는 과거에도 그녀에게 이렇게 대했다. 그리고 그녀도 이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나 바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생각하게 됐다. ‘저 사람이 언제나 나에게 시키는 일이 뭐지? 저 사람에게 밥해주고, 청소하고, 모시고 사는 건가?’ 비록 이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전혀 반감은 없었다. 오히려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샘솟는 것이었다. 단지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남몰래 자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책은 나날이 커져 결국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대대의 대장을 찾아갔다. ‘대장동지, 제게 할 일을 주세요. 저는 한가한 게 정말 싫습니다.’<sup>28)</sup>

이후 농장의 공적인 일 속에서 만족을 얻은 杜晩香은 결국 개간구의 모범노동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杜晩香>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杜晩香이라는 개인이 삶에 대한 자세는 모조리 드러난다. 그녀는 배려와 보살핌이 없는 가정생활을 지속하며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만이 없고 또한 존경과 사랑을 느낀다. 단지 가사 일만 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싫어, 급기야 사회적 노동을 통해 집체적 자아를 실현하려 하고, 결국 헌신과 노력 속에서 성공한다. 봉건적 현모양처의 미덕과 사회주의적 노동인민의 미덕을 한몸에 모아놓은 듯한 杜晩香의 형상은 만년의 丁玲이 “11기전회 이후 중앙의 정신에 부합”<sup>29)</sup>하는, 자신의 말과 사상감정을 대변하는 분신으로 여겼던 인물<sup>30)</sup>이다. 공개된 11기전회의 보고가 丁玲에게 준 메시지는 사회주의의 우수한 문학작품이란 여전히 결코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체주의정신의 발휘”<sup>31)</sup>해야 하는 것이고, 문학작품의 효용

28) 丁玲, <杜晩香>, 《丁玲文集, 3卷》, 295-296쪽.

29) 丁玲, <‘牛棚小品’出刊的故事>, 《丁玲文集, 5卷》, 431쪽. 이 글에서 丁玲은 “중앙의 지도동지가 ‘11대’의 보고에서 문예작품은 마땅히 개인 선전을 줄여야 하고, 보통의 노동자를 더 많이 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30) 丁玲, <關於文學創作>, 《丁玲文集, 6卷》, 399쪽.

31) 丁玲, <從群眾中來, 到群眾中去>, 《丁玲文集, 6卷》, 49-50쪽.

은 “정치적”이며, 문학의 가치란 “작품의 정치적인 깊이와 폭을 봐야”<sup>32)</sup>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杜晚香>의 사상적 경향과 주제가 대단히 낡은 느낌, 사상해방의 신시대를 준비하던 시기에 낙후한 느낌을 주는 것<sup>33)</sup>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작품의 낡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丁玲의 시대적 낙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丁玲의 의도된 낙후는 물론 완전한 정치적 복권을 기대했던 丁玲의 전략의 일면이 있을 것이다. 수십년 정치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당에 대한 충정만이 가장 신뢰할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丁玲은 자신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전함을 강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사상주체와 내용에서 주류이데올로기의 요구에 충실하여 당의 요구에 순응했던 것은 丁玲에게 분명히 의미있는 일이었다.

다른 한편, 과연 <杜晚香>은 “조금도 이기심이 없고”, “오로지 이타적인”, “눈 앞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sup>34)</sup> 지극히 담박하고 착실하고, 그러면서 평범하지 않은 노동여성을 창조했다. 杜晚香의 숭고하고 순결한 도덕적 세계는 인간사의 온갖 모순과 갈등을 담담하게 화해시키고 해소시킨다. 그래서 철없는 홍위병을 향한 나(丁玲)의 미움도 杜晚香의 품격 있는 세계에 의해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향하게<sup>35)</sup> 한다. 이런 <杜晚香>

32) 丁玲, <復一位青年讀者>, 《丁玲文集, 6卷》, 201쪽.

33) 이러한 사실은 丁玲도 알고 있었다. <杜晚香>을 발표하기 전에 長治의 문예중사자가 아닌 보통 지인들에게 미리 읽게한 결과, “요즘 시대에 신선하지 않다. 이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不是時鮮貨, 靠它亮相, 怕是不行)”고 평했다 한다. 이상의 내용, 丁玲, <‘牛棚小品’出刊的故事>, 《丁玲文集, 5卷》, 431쪽.

34) 丁玲, <關於‘杜晚香’>, 《丁玲文集, 5卷》, 424쪽.

35) 이에 대한 일화는 丁玲, <關於‘杜晚香’>, 《丁玲文集, 5卷》, 426쪽에 소개되어 있다. 젊은 홍위병들이 자신에게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고, 명령하고, 청소를 시키고, 오줌통을 치우게 했을 때, 丁玲은 무척 반감을 가졌다. “나라를 위해 노동하고 농장을 위해 손발이 터지도록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젊은 女性 知青들의 “개인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설마 “저 아이들 마음 속의 혁명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하지만 기꺼이 자진해서 젊은 知青들을 돌봐줬던 杜

이 보여주는 세계를 당의 정치적 요구에 순응하는 낙후한 것<sup>36)</sup>,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경험적인 것, 심미적인 것, 피와 살이 있는 예술형상으로 번역한 것<sup>37)</sup>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내용의 구성과 전개상 물론 가능하다. 그렇지만 일종의 문학적 境界라는 점에서 보자면, <두만향>에는 단순하고 성실하며 생명력 강한 사회주의 신여성의 도덕세계이자 중용의 인생경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만년의 丁玲이 자신의 평범치 않았던 인생역정에서 빚어낸 새로운 인생관이자 세계관의 한 단면인 것이다.

丁玲의 <杜晩香>의 도입부를 보자. <한 줄기 붉은 살구꽃(一枝紅杏)>이란 부제가 달린 작품은 시작은 다음과 같다.

봄이 왔다. 봄바람이 황사를 몰고와 평평한 고원 위를 휘날렸다. 바짝 마른 공기는 간신히 남아 있던 한 점 물기까지 빨아들여 대지를 짙 짙 갈라 놓았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그런데도 풀은 소리없이 이 틈, 저 틈을 뚫고나와 한잎 한잎 대지를 초록빛으로 물들인다. 나뭇가지 새싹도 천천히 뻗어나고, 회색빛 도는 누런 골짜기 시냇물도 끊임없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고 있다. 한 줄기 가는 시냇물이 외로이 낮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냇물은 가끔 작은 소와 양떼를 건너 가파른 산길까지 구불구불 이어지곤 했다. 길가에 어지럽게 쌓아 올린 나지막한 담벼락에는 한 줄기 눈부신 살구꽃이 활짝 피었고, 이쪽 언덕, 저쪽 골짜기로 향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눈빛으로 그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이것이 봄이다. 놀러도 억누를 수 없고, 얼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메말라도 죽지 않는 봄이다. 만물은 언제나 이렇게 완강하게 태양을 향해 머리를 쳐 들고, 곳곳이 몸을 세워 그들의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8)</sup>

晩香을 생각하고, 철없던 그들이 결국 杜晩香을 진심으로 따르고 성숙하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만과 미움이 아무 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36) 秦林芳, 앞의 책, 240쪽.

37) 孟悅·戴錦華, 앞의 책, 132쪽.

38) 丁玲, <杜晩香>, 《丁玲文集, 3卷》, 280쪽.

丁玲의 <杜晚香>에서 한 폭 이미지의 과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봄날 만물의 정경 속에 풀, 나무, 시냇물, 살구꽃은 모두 황사 휘날리며 바짝 마른 극한의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생명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야말로 “눌러도 억누를 수 없고, 얼어도 무너지지 않으며, 메말라도 죽지 않는(壓不住, 凍不垮, 乾不死)” 봄의 생명력인 것이다. 그것은 丁玲의 자아상상이기도 했다. 陳明에게 쓴 편지에 “우리는 20여년 밑바닥에 있어서 흙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고 굳습니다. 결코 연약하고 비틀리지 않습니다”<sup>39)</sup>라는 기세는 바로 봄의 생명력이자 杜晚香의 생명력, 그리고 丁玲 자신의 생명력인 것이다.

생명력에 대한 경이로움은 그 생명력의 존재인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주체, 개체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간다. 어떤 혹독한 상황에서도 부단히 깨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은 이 세계의 근원적 공정함과 정의로움의 징표이다. 이것은 분명히 12년 北大荒의 자연과 노동 속에서 새로운 삶이 에너지를 채워갔던 丁玲의 예술적 상상이자 삶에 대한 태도이다.

필자는 논리와 추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적 감수방식, 정서화된 이해방식이야말로 예술가 丁玲의 丁玲다움이라 판단한다. 그런데 延安文藝講話 이후 올바른 세계관의 획득을 위해 의식적으로 억눌렀던 丁玲 특유의 정서화된 감수방식이 자신의 모범작품이라고 확신하는 <杜晚香>의 첫 부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개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삶의 경이로움에 반응하는 개성주의적 요소가 사회주의적 노동개조라는 정치적 요구와 융합하며 인생에 대한 丁玲의 새로운 상태,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丁玲은 이 구절에 대해 “돌판의 무게와 중압을 뚫고 나오는 들풀과 살구꽃의 경력이 혹독했던 杜晚香의 어린 시절과 닮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杜晚香의 北大荒에 대한 심정은 동시에 나의 북대황과

39) 丁玲, <致陳明, 1978年12月10日信>, 《丁玲年譜長篇, 下卷》, 天津人民出版社, 2006, 506쪽.

당의 사업에 대한 뜨거운 애정<sup>40)</sup>이라 말한다. <杜晚香>의 도입부가 자신의 정치적 적(즉 周揚)에 구실을 줄 수 있음<sup>41)</sup>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 만년의 丁玲의 세계관, 丁玲의 미적 의식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인함을 바탕으로 杜晚香이 도달한 중용과 평화의 이상적 인격은 사실상 정치적 풍파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피폐하고 고갈된 채 북대황을 향했던 丁玲이 자연의 생명력에 경외감을 느끼며, 스스로 생명을 일궈내는 육체노동 속에서 치유되는 과정<sup>42)</sup>을 형상화한 인격인 것이다.

<杜晚香>을 통해 보여주는 이상적인 인격의 境界와 인생태도는 <杜晚香>과 달리 문단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sup>43)</sup> <牛棚小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丁玲이 北京에 돌아온 1979년 4월, 유선암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40) 丁玲, <關於‘杜晚香’>, 《丁玲文集, 5卷》, 427쪽.

41) 丁玲의 복권 이후 정치문제(즉 역사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벌어졌던 周揚과의 갈등양상과 그 역사적 근원에 대해서는 김미정, <丁玲 ‘비판’과 ‘재비판’ 사이>, 《중국문학》 58집 및 <丁玲의 만년—그녀는 왜 극좌보수주의자가 되었나?>, 《중국현대문학》 58집 참고.

42) 丁玲이 北大荒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노동에 임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가지 번잡한 노동 가운데 丁玲이 가장 정성을 기울인 것은 ‘병아리 키우기’였다. 丁玲이 폐기처분대상인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는 鄭笑楓, 《丁玲在北大荒》, 23쪽에 잘 나타나 있다. 훗날 丁玲이 미국에서 강제노동개조의 폭력성을 부정하며, “병아리 키우는 일은 무척 유쾌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도 정치적인 위선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丁玲은 생명을 보듬고 키우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는 것이다.

43) <牛棚小品>에 대해 많은 이들이 높은 평가를 내렸다. 丁玲의 비서였던 張鳳珠의 다음과 같은 말은 <牛棚小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대표한다. “그녀(丁玲)는 <牛棚小品>을 완성하자 내게 읽어보게 하였다. 나는 읽으면서, 경이로움과 감탄을 느꼈다. 丁玲이 다시 이런 작품을 썼구나! 그녀가 과거에 썼던 <不算情書> 처럼, 이 세상에는 이런 진지한 정감도 있구나.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牛棚小品>은 고전적인 사랑을 세밀하게 물 흐르듯 그려놓았다. 이것이 丁玲이다. 이것이 <莎菲여사의 일기>를 썼던 丁玲, 고회를 지난 나이에 소녀의 청춘의 감성을 지닌 丁玲이다” 張鳳珠: <回憶丁玲>, 《黃海》 2001년 1기 참고. 이외에도 王蒙, 秦林芳, 趙煥亭, 陳桂良 등은 물론이고, 丁玲의 만년작품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페미니즘 시각의 연구자들도 <牛棚小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여진 <牛棚小品>은 “본래 나에 대해 쓸 생각이 없었지만” “다른 동지가 쓴 외양간의 생활, 부부의 사랑, 생사별리의 산문을 읽고 난 뒤” “약간의 불만을 느껴”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丁玲 역시 “그러한 아픔”을 쓰고 싶었지만 “절망하거나 동정하거나 남김없이 쏟아붓지 않고” “몇 가닥의 감정으로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sup>44)</sup> 쓰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牛棚小品>에는 고통의 눈물이 없다. 절창으로 꼽히는 ‘窓後’ ‘書簡’ ‘別離’은 모두 애뜻한 부부간의 사랑과 섬세한 교감의 순간들을 손에 잡힐 듯 그리고 있지만 놀랄만큼 담담하고 의연하다. 丁玲의 필치는 마치 莎菲시대를 재현하는 듯 보이지만, 丁玲이 보여주는 인생의 미적 경지는 질문하고 힐난하고 사색하는 莎菲시대의 그것이 아닌 평온하고 인정미 넘치는 中和의 아름다움이다. 만년 丁玲의 문학세계는 이른 바 그나마 “다소간의 진실”<sup>45)</sup>이 담겼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건, 亮相의 의도로 기획된 전략적 작품이건 노년이 된 丁玲의 새로운 인생경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IV. 전략과 진실 사이, 와해되는 긴장

개체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이로움이라는 심미적 상상이 사회주의적 노동개조라는 정치적 요구와 융합하며 정의롭고 강인하면서도 온유둔후한 丁玲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상태, 새로운 태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杜晚香>을 다시 쓰기 시작한 1978년만 하더라도 丁玲은 정치적 문제가 곧 해결되리라는 기대에 차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丁玲은 자신의 亮相을 위해 전략적인 작품을 썼지만 丁玲의 문학가로서의 본능적 미적 상상과 진

44) 丁玲, <‘牛棚小品’出刊的故事>, 《丁玲文集, 5卷》, 433쪽.

45) 위의 평가는 페미니즘 시각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반적이다. 인용 출처는 김미란, <‘莎菲여사의 일기’와 ‘杜晚香’을 통해본 丁玲의 여성인식>, 《중어중문학》, 제28집, 2001.

실은 그 자체의 힘으로 정치적 전략 사이에 스며들어 부지불식간에 미세한 흔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丁玲은 진실과 전략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감당하면서, 양측의 힘의 정도를 조율하는 내적 에너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丁玲이 자신의 정치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은 순간, 丁玲은 자신의 내적 긴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긴장 자체를 와해시켜버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후 丁玲이 雜文의 범주에 들만한 사회비평적 산문이나 기행문, 강연문 외에 전혀 본격적인 문학작품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丁玲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태양은 상건하에 비친다>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 <힘겨운 세월 속에서(在嚴寒的日子里)><sup>46)</sup>를 완성하고 싶다고 밝히며, “언제나 그 사람들”과 “그 때와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머리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들을 썬야만 한다”<sup>47)</sup>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丁玲은 1979년 이후 <힘겨운 세월 속에서>를 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기자들에게 밝힌 것은 “많은 업무”, “계속되는 모임”,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들에 의한 원고 분실”, 복권 이후에는 “노년의 질병과 원기 상실”, “변잡한 응대”<sup>48)</sup> 등을 들고 있다. 물론 모두 창작을 방해하는 외적 요인들이다. 그렇지만 丁玲이 더 이상 문학을 창작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뿐이었을까?

丁玲은 <杜晩香> 완성을 즈음하여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군중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신문에 나왔는가에 관심이 있지 다른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문에 실리고 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요”<sup>49)</sup>라고 속마

46) <힘겨운 세월 속에서>는 공통구의 농민들이 공산당의 지도 아래 해방과 신중국을 맞이하는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원래 1956년 10월 《人民文學》에 앞부분 8장(약 4만자)이 발표됐고, 1975년 長治에서 20년만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여 1979년에 《清明》에 24장(약 10만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丁玲은 더 이상 집필을 하지 못한다.

47) 丁玲, <答‘開卷’記者問>, 《丁玲文集, 5卷》, 437쪽.

48) 같은 책, 437-439쪽.

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고려가 그녀의 문학작품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丁玲도 의식하고 있는 바였다. 작품의 진실성과 정치적 고려 사이의 긴장관계를 의식하는 丁玲의 내면 갈등은 자못 심각한 것이었다.

오후 잠을 청할 때, 작품을 구상했다. 한 중학교 교사가 고향에 돌아가 농촌에서 일을 한다. 그의 생활 속에서 농촌이 입은 사인방의 폐해를 심층의 제재로 할 것이며 <狂人日記>와 닮은 일기형식을 쓸 것이다. 수년 동안 농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통한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신이 깨어나자 또 두려워졌다. 글을 쓰려면 더욱 깊이, 더욱 생활화하여 써야 한다. 그러면 또 일군의 사람들에게 밋보이겠지.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자유가 없다. <삼팔절유감>은 나에게 수십년 고통을 줬다. 옛 상처가 여전한데, 어찌 또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자손들에게 재앙을 남기겠는가?<sup>50)</sup>

가장 사적인 글이라 할 수 있는 위의 일기는 1979년 이후 丁玲이 왜 더 이상 본격적인 작품을 쓰지 못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작가로서 자의식 강한 丁玲이 문학작품을 구상하는 것, 그것은 미학적 상상 속의 즐거움에 속하는 일이자 본능적인 생의 욕구의 분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丁玲은 “정신이 들자” 곧바로 구상했던 작품을 포기하고 말았다. “생활화”된 인물형상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 즉 문학적 진실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진실에 대한 정치이성적 억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丁玲 내부에서 생의 욕구와 문학적 진실이 억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신의 삶에 대해 기대에 차있을 때, 강렬한 삶의 욕구를 느낄 때, 丁玲은 정치와 문학의 긴장 속에서 문학적 에너지를 끌어올리며 작품에 그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명예회복이 난망하던 사실이 점차 뚜렷해지자 눈앞의 현실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된다. 丁玲은 자기

49) 丁玲, <致陳明, 1978年12月10日>, 《丁玲年譜長篇, 下卷》, 506쪽.

50) 丁玲, <1978年10月8日 日記>, 《丁玲年譜長篇, 下卷》, 497쪽.

검열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문학과 정치의 불안정한 긴장관계는 급속히 와해되면서, 문학에 대한 본능적 갈망과 생기는 사그라진다. 2년여 뒤, 문학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고백하는 丁玲의 다음의 편지에는 문학에 대한 丁玲의 절절한 회한을 담고 있다.

2년여 동안 비록 부득이하게 짙막한 글들을 썼지만, 그것은 스스로 독자들에게 명예를 회복(平反)하고 태도를 표명(亮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정말이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더 이상 그런 단문은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 左는 左대로 사랑스럽고, 右는 右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20여년의 시간을 바치고, 수많은 고생을 한 것도 당의 정책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간신히 몇몇 작은 곳에 글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지요. 당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左건 右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데, 만일 <苦戀>을 내가 썼다면, 左건 右건 모두 힘을 합쳐서 홍수처럼 나를 포위공격할 것입니다. 설마 20여년간 이런 정도의 경험과 교훈을 얻지 못했겠습니까? 조금은 더 약삭빠르게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예란 위대한 일이라 내가 할 수 없으니 50년 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어찌면 용기있는 사람(그 때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사심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sup>51)</sup>

丁玲은 白樺의 <苦戀>에 대해 강력 비판했었다.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평소 마음 속에 감춰뒀던 억울함의 불씨에 불을 붙여”, “정도를 넘어섰다”<sup>52)</sup>는 이유였다. 그것은 달리 보자면 丁玲의 마음 속에서 구상되고 있었던 <狂人日記>와 비슷한 형식의 새로운 소설,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스스로 행한 자아검열의 내용이기도 했다. 이제 “50년 뒤”, “내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용기 있고”, “사심 없으며”,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문학이란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정령에게 문학적 진실

51) 丁玲, <致宋謀瑒, 1981年6月4日信>, 《丁玲年譜長篇, 下卷》, 588쪽.

52) 秦林芳, <丁玲與傷痕文學>, 《文藝爭鳴》 2기, 2009.

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丁玲이 스스로 “작가는 정치화된 사람”<sup>53)</sup>임을 강조하며 좌적 언행을 계속한 것은 더 이상 기괴한 일이 아니었다.

## V. 나오는 글

그러면 만년의 丁玲은 정말 개조된 것일까? 필자는 丁玲은 개조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개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적 개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소한 丁玲 자신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주어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의해 삶의 내용을 개조했던 셈이다. 만년의 丁玲은 분명히 분열되는 자이를 의식했다. 그리고 丁玲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丁玲의 선택은 당장의 절실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丁玲의 문학적 진실, 문학가로서의 의의를 포기하는 길이었다. 그 결과 丁玲의 존재가치는 더 이상 작가가 아닌 명예로운 공산당원에서 찾아야 했고, 丁玲의 문학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周揚과의 기나긴 싸움과 사상해방운동의 풍조 속에서 홀로 ‘老左’의 자리를 지키던 丁玲의 언행에는 건조한 책략과 감동 없는 큰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 <參考文獻>

丁玲, 《丁玲文集》, 湖南人民出版社, 1982년.

丁玲, 《風雪人間》, 廈門大學出版社, 1987년.

丁玲, 《丁玲集外文選》, 人民文學出版社, 1983년.

53) 丁玲, <作家是政治化了的人>, 《丁玲文集, 6卷》, 231쪽.

- 王增如·李向東 編著, 《丁玲年譜長編, 上·下卷》, 天津人民出版社, 2006년.
- 周良沛, 《丁玲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년.
- 袁良駿 編, 《丁玲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1982년.
- 洪子誠, 《1956: 百花時代》, 山東教育出版社, 1998년.
- 秦林芳, 《丁玲 — 總有禪機參不破: 丁玲最后37年》, 中國文史出版社, 2006년.
- 王周生, 《丁玲: 飛蛾扑火》, 上海教育出版社, 1999년.
- 鄭笑楓, 《丁玲在北大荒》, 湖南人民出版社, 1989년.
- 孟悅·戴錦華, 《浮出歷史地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년.
- 董炳月, <男權與丁玲早期小說創作>,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3년4기.
- 張鳳珠, 「回憶丁玲」, 『黃海』 2001년 제1기
- 秦林芳, <丁玲與傷痕文學>, 《文藝爭鳴》, 2009.2기.
- 萬蓮子, <論‘丁玲現象’>, 《學海》 2001.1.
- 陳明, <丁玲在延安>, 《新文學史料》 1993년 2기.
- 查振科·李向東 整理, <陳明口述— 丁玲晩年那些事>, 《新文學史料》 제4기, 2010년.
- 許傳宏, <析丁玲晩年的文學價值取向>, 《當代作家評論》 2001년 제4기.
- 趙煥亭, <從‘牛棚小品’論丁玲晩年創作的個性>, 《河南大學學報》 제46卷 3期, 2006년 5월.
- 張永泉, <走不出的怪圈—丁玲晩年心態探析>, <華北水利水電學報> 1999년 3월.
- 陳嬌華, <丁玲的政治化文藝思想辨析>, 《中國文學研究》, 2010, 4기.
- 李征宙, <丁玲晩年創作中的自我角色定位>, 《貴州社會科學》, 2005년 1월.
- 袁圓, <隱文本視角下的心靈真相—論晩年丁玲文藝思想的二重悖反>, 《南京師大學報》 2009년 1월.
- 陳桂良·周紅, <歲寒, 然後知松柏之後凋>, 《現代文學》, 2009년 12월.
- 朱莎莎, <帶鐐銬的舞者—丁玲晩年心態之我見>, 《文藝評論》
- 김미란, <‘莎菲여사의 일기’와 ‘杜晚香’을 통해본 丁玲의 여성인식>, 《중

어중문학》 제28집, 2001년 6월.

김미정, <丁玲문학의 진폭2-좌익문예에서 공농병문예로>, 《중국어문학》 52집, 2008년 12월.

김미정, <丁玲 ‘비판’과 ‘재비판’ 사이>, 《중국문학》 58집, 2009년 2월.

김미정, <丁玲의 만년-그녀는 왜 극좌보수주의자가 되었을까?>, 《중국현대문학》 58집, 2011.9.

### <中文提要>

本文提出的對於‘丁玲晚年的文學世界’的論議，是以丁玲晚年代表作品<杜晚香>以及丁玲家信及日記為基本文本，對丁玲復出後幾年政治與文學的真實內容進行探索的。其基本思路是以丁玲晚年的‘政治戰略’與‘文學真實’的兩種因素的緊張關係而構成的。

本文以為<杜晚香>是內在的精神創傷和外在因素的困擾，從而遮蔽了丁玲文學想像和生命力的一面。不過論者認為這不能說丁玲文學已經恢復本來的意義。準確地說，丁玲對主流文藝思想的擁護是真誠的，符合其思想發展軌迹和邏輯。因此可以說，丁玲晚年的文學思想深處始終存在着不可調和的矛盾，那就是堅決的政治信念與蓬勃的生命體驗，強烈的政治情結與本能的藝術想像。其間充斥着緊張的張力，蘊含着豐富的內涵。

但是當丁玲充分認識到自己政治問題的解決不那麼簡單，她便急速地放棄了一個作家的‘文學真實’與‘審美想像’，從而其戰略與真實的不穩定的緊張狀態也漸漸被瓦解了。她有意改造了自己。終於成了一個頑固的‘老左’。

주제어 : 丁玲, 晚年文學, 自我改造, 戰略與真實, 緊張的瓦解